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

지난 한 해도 우리를 지키시고 기쁨으로 새해의 설 명절을 온 가족이 함께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누구나 새해가 되면 한 해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자신의 미래와 가정의 평안을 위해 철저한 계획과 대비책을 세우는 노력을 합니다. 재테크를 공부하기도 하고 더 확실한 보험상품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모든 계획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담장을 높이고 더 튼튼한 현관문을 만들고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만듭니다. 심지어는 CCTV를 달거나 보안업체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그 모든 노력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풍요를 위해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일어나 더 늦게 잠드는 성실의 수고를 하거나 현재의 익숙함을 포기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직장을 찾아보는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그 모든 노력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지혜로 자신의 평안과 안전을 책임지려 밤낮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완전한 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잠은 완전한 휴식, 쉼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 모든 삶의 문제를 맡기어 드린 사람에게만 그 완전한 쉼이 허락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우리 가정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우리 가정이 지켜집니다.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셔야 우리 가정이 풍요롭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음으로 진정한 쉼에 거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새해에 복 많이 베풀어주시기를 기원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에게 어떤 복 받기를 기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의 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가정,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 설날 가정예배



 한국기독교신앙로회 신암교회

2021년 설에 드리는 감사예배

예식사 인도자

설 명절을 맞아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정성 모아 한마음과 한뜻으로 예배드립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570 장 다 같이

1.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2.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3.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후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양
철을 따라 풀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공동기도 다 같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 가정을 계획하신 분이시며 지금까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좁은 길일지라도 찬송하며 걸어갈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끝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해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낭독 시편 127:1~2 말은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말 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 말은이

이야기나눔 다 같이

어른들이 자녀들을 위해 신앙의 덕담을 주시거나
한해를 위한 신앙과 삶의 다짐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찬 송 559 장 다 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의기도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애찬과교제 사랑을 나누는 식탁